110

식도암의 임상적 고찰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박진석 · 유재현 · 임승평 · 이 영

식도암은 다른 기관 암보다 드물게 발생하나 대부분 악성종양이며 예후 또한 매우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수술적 요법이 고식적 치료에 그치고, 장기간의 생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수술 및 수술전후 관리 향상으로 술후 사망율 및 합병증 빈도가 줄어들고, 조기 진단 및 완전 종양절제에 대하여는 장기간 생존예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광범위한 수술적 절제 및 소화기 재건술이 식도암 치료 선택이 되고 있다.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에서 1990년 8월부터 1995년 8월까지 근치절제가 가능했던 식도암 37례를 대상으로, 임상분석과 술후추적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호발연령은 50대와 60대가 전체대상의 8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남녀비는 약 18:1 이었다.
2. 술전 임상증상은 연하곤란(95%), 흉통 및 호흡곤란(76%), 체중감소(57%) 순이 였고, 과거력상 흡연, 음주, 부식제 연하로 인한 식도협착 등과 관련이 있었다.
3. 병변의 위치는 상부식도 2례, 중부식도 22례, 하부식도 13례였으며, 병리세포조직학적으로 편평상피세포암이 35례(95%), 선암 1례(2.5%), 선암성 상피세포암 1례(2.5%) 이였다. 병기별로는 1기 1례, 2기 22례, 3기 8례, 4기 6례였다.
4. 수술은 대부분에서 부분식도절제 및 식도-위 문합술을 시행하였으며, 문합 부위는 경부 7례, 우흉곽내 29례, 좌흉곽내 1례였다. 재건장기는 위 35례, 대장 2례로 전위 적출술시 대장을 이용하였다.
5. 수술사망율은 없었으며, 병원사망율은 2례(5.4%)로, 1례는 패혈증, 1례는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술후 합병증은 19례에서 있었으며 창상감염, 문합부 누출, 농흉, 늑막삼출 및 폐렴, 유미흉, 술후출혈, 폐 혈증, 호흡부전 등이었다.
6. 추적기간중 26례가 사망하였으며, 평균생존기간은 22개월이었다.
7. 수술후 생존율은 Kaplan-Meier방법으로 누적생존율을 계산한 결과 1년, 3년, 5년 생존율은 각각 64.3%, 27.8%, 23.2%였다.